

사회

# 내일 경찰의 날 ... 이런 경찰서도 있다

“첫 여성파출소장 되고 싶다” → 동면 파출소장에  
“형사가 되고 싶다” → 민원실에서 수사과로 발령

## 화순경찰 소통 인사 성과 쑥쑥

‘꿈은 이루어진다’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요즘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다. 화순경찰서(서장 윤명성·사진)가 직원의 희망사항을 전폭 지원하는 독특한 ‘꿈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경찰은 윤 서장 부임 직후인 지난 5월 19일 청사 4층 대회의실 계시판에 가로 1.5m·세로 1m 크기의 ‘경찰관 꿈 게시판’을 설치했다.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전 직원 200명은 자신의 소속·이름·꿈 등 희망사항을 담은 ‘사과 꿈나무’ 카드를 게시판에 걸었다. 내용은 ‘건장’, ‘부자’, ‘행복하기’ 등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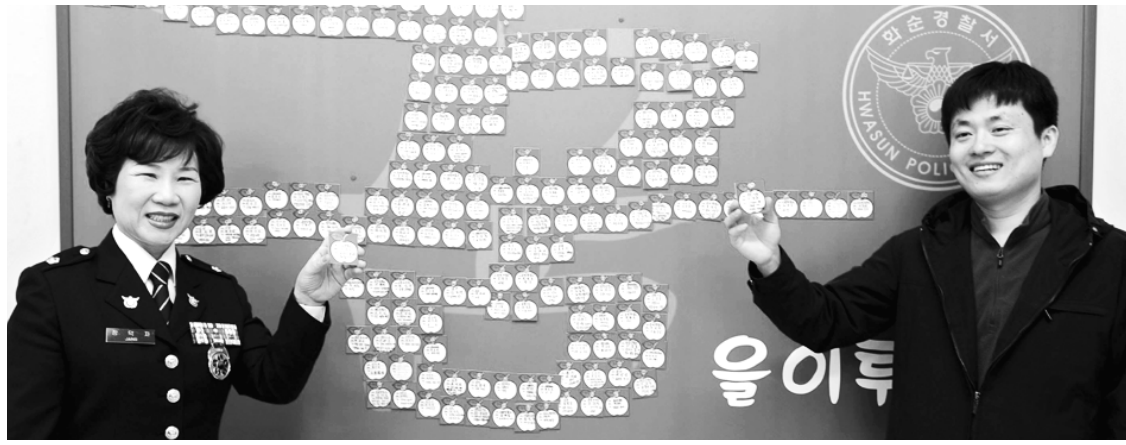


인공은 장덕자(여·56) 경위와 이경훈(38) 경장.

도곡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장 경위는 화순에서 여성 최초로 파출소장이 되는 게 꿈이라고 적었다. 민원실에서 일하던 이 경장은 형사가 되고 싶다고 자신의 소망을 적었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3일 정기 인사에서 장 경위를 동면파출소장으로, 이 경장을 수사과로 각각 발령

윤 서장은 직원들의 소망을 살펴본 후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망을 적은 2명의 꿈을 이뤄줬다. 주



화순군 화순읍 화순경찰청사 4층 대회의실에 설치된 사과 꿈나무 게시판. 19일 장덕자(여·56·왼쪽) 경위와 이경훈(38) 경장이 자신의 사과 꿈나무를 가리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냈다. 이들은 꿈을 이루게 되자 소속 부서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게 동료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윤 서장이 심은 사과 꿈나무는 일상에서 직원들이 갖는 소망을 180도 바꿔 놓았다. 막연하던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다시 적은 사과 꿈나무를 달기 시작한 것이다.

사과 꿈나무는 승진·해의 여행·퇴직 후 식당운영·주재관·소속팀 인원 충원·모범 공무원 등 현실생활을 바

탕으로 구체적으로 달라졌다. 직원들이 진정한 일상의 목표를 세우고, 윤 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기 진작은 물론 부서 간 단합 등 경찰서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윤 서장 부임 직후 강도·강간·절도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8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부서 이기주의가 많이 줄어들고 상하직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각 과 사무실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명성 서장은 “부임 직후 부하 직원과 의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다”며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직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나원침 (8420) 김종두



### 군인·항공사 기장

### 北 찬양 70명 수사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해 종북(從北) 사이트나 유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변호사와 병무청 공무원 등 70여명이 공안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19일 종북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와 유사 홈페이지, 개인 웹사이트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 변호사, 민항사 기장 등 7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적 사이트인 사방사에서 북한 체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혐의로 44명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상에 개인 과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기장 김모(44)씨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두 개의 전쟁전력’ 등 이적표현물 60여건을 게재하거나 배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등 북한 원전 600여건을 링크시켜 네티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순창군수 후보 영장 청구

### 지난 7월 후보매수 혐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상대 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순창군수 후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B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A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문신 보이며 협박 환각 주사 맞아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해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한 A(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해남군 해남읍 한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해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로 쓰이는 날부린과 신경안정제인 바리올을 1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A씨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원하는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 문신을 과시하는 등 횡포를 부려 의사 등을 위협해 환각성분인 있는 주사를 맞았다고 경찰은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바로잡습니다 = 본보 10월 19일자 ‘장례식장 조문객 집단실사’ 제하 기사 중 문상객의 집단 실사는 보성읍에 소재한 보성 장례식장에서 발생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 대법원, 법정관리 사건

대법원은 19일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재성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엔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

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보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광주시가 최근 건축허가 취소를 남구에 요청한 가운데 18일 법제처 관계자(왼쪽)가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양과동 목재폐기장 허가도 위법 여부 촉각

### 광주시, 관련 법규 적법성 법제처에 의뢰 실사

광주시가 남구청의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통보(광주일보 10월 18일 1·3면) 한 가운데 19일 오전 법제처와 남구청 공무원, 사업자 등이 참여한 현장 실사가 실시됐다.

이날 실사는 광주시가 남구청의 허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연결한 목재폐기물 처리 시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진행됐다.

법제처는 이날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1개의 사업자를 고의로 2개로 나누는 등의 편법행위가 있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의 연결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법제처의 방극봉 경제법령해석과장은 “세 곳의 사업시행자가 다 다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세 시설이 같은 목적의 시설로 판단되면 이 또한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2009년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세 시설의 사업자와 신청시기가 모두 달라 다른 사업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감사 후 결정이 내려지면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하나의 토지를 분할해서 건축물 2개를 건축할 때는 건축물을 하나로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소각시설(건축면적 1127㎡)과 바로 옆 목재폐기물 처리시

설의 토지 또는 사업체의 실소유주가 동일해 연결한 결과 판단되면 시설 면적이 1500㎡이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대상이 되고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 된다.

이와함께 3000㎡ 이상의 토지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나눠 건축물 신축을 결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세 시설이 같은 목적의 시설로 판단되면 이 또한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2009년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세 시설의 사업자와 신청시기가 모두 달라 다른 사업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감사 후 결정이 내려지면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유해 논란 물담배 인터넷 유통 확산

### 전남경찰, 판매상 5명 검거

최근 국내 젊은층 사이에서 물담배가 인터넷 등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물담배 유해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중이다.

주로 중동지역에서 유행하던 물담배가 서울 홍대·이태원 일대 카페·바·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손님들은 1만~1만5000원 정도 지불하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물담배를 즐길 수 있다.

물담배는 담뱃잎을 태운 연기를 물에 통과시킨 뒤 호스를 통해 빨아들이는 것으로 인도와 터키 등에서 즐기는 방식이다. 젊은층 사이에서 인

기를 끈 이유는 첨가물에 따라 복숭아·딸기 등 맛이 다양하다는데, 연기가 물을 통과하면서 걸러지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물담배 흡연 1시간 피우는데 일반 담배 100개비 이상과 맞먹는 유해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물담배 애연가들이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더 많은 니코틴과 일산화탄소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물담배와 전자담배 액상 등을 판 A(33)씨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인 인기

##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재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갤러리존, 대림물류센터, 천연한방병원, 텃밭, 양동시장 외 200여곳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뚜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 (주)우림네트웍스

# 062-251-9792

www.donbandi.com